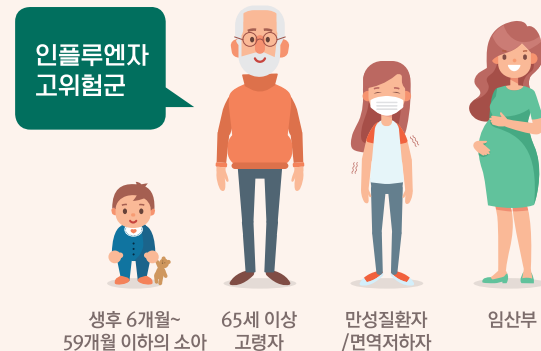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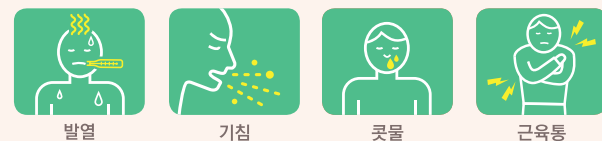


인플루엔자란 무엇인가요?

흔히 독감이라고 하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입니다. 만 65세 이상, 유아, 임산부, 폐질환/심장질환 환자, 특정 만성질환 환자,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 및 입원할 위험이 높습니다.



인플루엔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?



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~4일(평균 2일) 후에 발열, 두통, 근육통, 콧물, 인후통,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. 소아는 오심, 구토,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발열 및 기타 증상은 일반적으로 7~10일 지속되지만 기침 등은 1~2주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.

노인요양시설에서 인플루엔자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는 언제인가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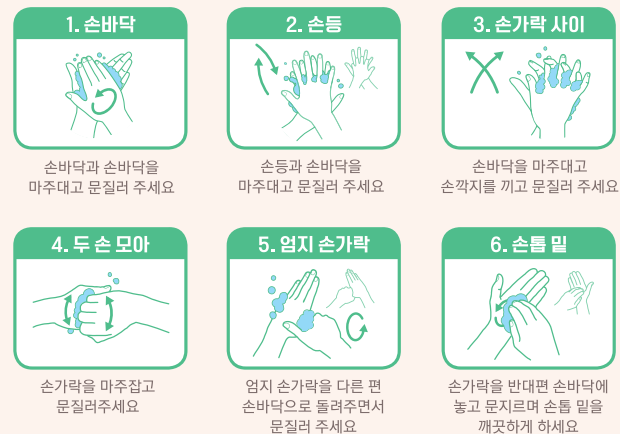
지역사회에서 유행하는 시기로 12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입니다. 직원이나 방문자가 지역사회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시설 내로 유입시킬 수 있으니 지역사회의 유행 상황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.

* 인플루엔자 국내 발생현황 확인은 감염병포털(www.cdc.go.kr/npt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개인위생수칙 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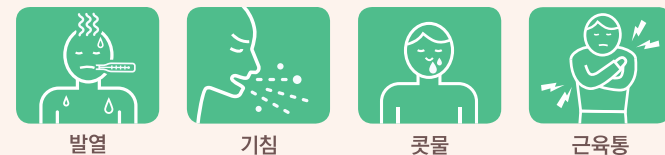
올바른 손씻기 6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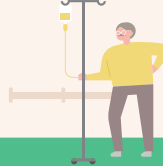


기침예절 실천



노인요양시설 직원을 위한 인플루엔자 바로알기 예방라이프





인플루엔자 사전 대비 요령

1) 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정보 수집하기

- 지역(시·도 및 시·군·구)의 유행 상황 확인
 - *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의 표본감시 소식지 및 보도자료 참조
 - * 인플루엔자 국내 발생현황 확인은 감염병포탈 (www.cdc.go.kr/npt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입소자 및 시설 소속 직원의 감염 현황 파악

2) 시설 사전에 점검하기

- 감염 환자를 위한 1인실 확보
- 치료 및 입원을 의뢰할 의료기관 확보

3) 바이러스 유입 방지하기

- 유행 시기 전까지 예방접종 권고
- 기본 예방 수칙(마스크 착용, 손 씻기 및 기침 예절) 준수
- 유증상자(발열 및 기침 또는 인후통 등)와의 접촉 회피
- 대상자 별 권고사항 준수하기

입소자 : 예방접종 및 외박으로부터의 복귀 시 증상 여부 등 건강 상태 확인

방문객 : 유증상자의 면회 등 출입 관련 제한

소속 직원 : 예방접종 권고 및 증상 발생 시 근무 제한

인플루엔자 대응 수칙

1) 환자 발생 현황 파악하기

- 발열,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자 발생 여부를 매일 확인하기
-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 발생 시,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열 등 전신 증상 및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, 요양시설 내 인플루엔자 유행을 의심할 수 있음

2) 환자 관리하기

- 유행시기에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시설 내에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의료진의 진료를 받기
- 환자가 거주하는 방을 1인실화 하되, 잠소를 사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자와 그 외 입소자를 커튼 등으로 차단하고, 침대 간 간격은 2m 정도 확보

3) 감염경로 차단하기

- 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하여,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동 식당, 훈련실, 공동 목욕탕 등 시설 내 집합 장소에서의 활동을 제한
- 방문객 등 외부인의 시설 출입 시, 증상 점검을 철저히 하고, 관련 증상이 있는 외부인의 출입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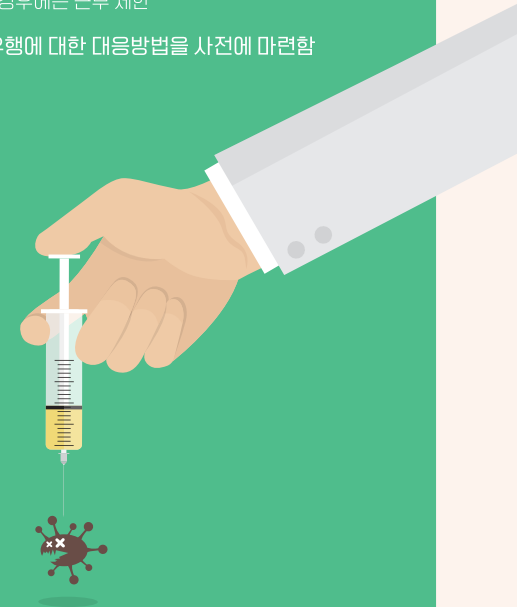
4) 주변 환경 관리하기

- 자주 만지는 표면과 물건을 닦고 적절히 소독하기
- 폐기물 처리에 대한 표준 절차를 준수하기

요양시설의 직원 수칙

직원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,
요양시설 내로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

- 유행 전에 예방접종 받기
-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,
 - *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소자들과 접촉을 피함
 - *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
 - * 인플루엔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근무 제한
- 시설 내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한 대응방법을 사전에 마련함



문의사항이 있을 경우,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☎1339)로 문의하거나,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www.cdc.go.kr)를 확인하세요.